청년불자, 선거·환경 파수역할

지자제 앞두고 위상강화…조직재정비 박차

청년불자들이 활동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앞둔 청년불자들은 자체 조직을 강화시키며 공명선거, 환경운동의 파수꾼으로 나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앞장서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중앙, 지구, 지회의 행정체제를 개선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6월 지자제 선거와 운영에 따른 포럼을 개최, 조직사업에 기초한 포교사업을 추진한다.

대불청은 최우선적으로 조직강화를 위한 연계망 구축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불청은 기존 조직의 수평·수직적인 관리를 위한 전국불교청년대회, 정기법회 및 각종 사업 운영에 교육강사지원 회원 배가운동, 진각종청년회 등과의 통합내지 연대구성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에 돌입했다.

대불청이 4월 1일 개최하는 '불교와 지자제 정책' 포럼은 자체조직의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지역사회 운동의 지휘그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불청은 조직강화에 비례해 포교사업과 문화사업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구별로 기초교리강좌를 중심으로 펼쳐오고 있는 포교사업은 대불청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초심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불청 청년불자들은 기초교리강좌의 정기순회교육을 병행해 중앙과 지국, 지국과 지부, 지부와 지회의 다채널 연계망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불청은 숙원사업인 만해회관건립에 '1인 벽돌쌓기 운동'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지구의 경우 교육시스템이 자생적으로 형성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임들은 일반사회학 경제학 회원관리론 등 폭넓은 이론과 실무경험의 의견교환을 통해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조직의 결속력을 함께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부산지구는 환경보호단체를 결성,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내의 청년불자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편, 대구지구는 동화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사설사암연합회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내부역량을 다지는 한편 공명선거 감시단 발족 등 사회사업에도 분주하다. 또한 진각종의 대한밀교청년회(회장 박회택)는 지속사업인 '청정국토 가꾸기운동'을 통해 환경보전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필선 기자〉

재야·시민단체협 출범

내달 1일…창립준비위원장 법타스님

교육, 문화, 통일, 경제, 공해, 언론, 사회복지 등에서 대사회적인 불교활동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가칭)'불교시민단체협의회(이하 불민협)'가 오는 4월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불민협은 지난 8일 오후 7시 녹수청산에서 '대표자 및 실무자 확대회의'를 열어 창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에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불민협은 덕심스님(공추불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 4인의 창립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창립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창립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불민협에 참가한 단체는 평불협, 경불련, 공추불,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자비의 전화, 불교 간병인협회, 보리방송모니터모임, 한마음 불자후원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등 모두 9개 단체다.

공선협 6일 발대

평불협·경불련 등 동참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불협과 경불련등 4백여 시민단체가 연대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공동대표 송월주 강문규 이세중)가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고장 주인정신 공명선거로 꽃피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공선협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1대1 감시운동'을 펼치게 되며,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회장)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됐다.

◇감로심장회는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을 통해 정밀검사와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회복시까지 치료를 맡고 있다.

감로심장회 무료수술 1백명 넘어

환자 후원사업·농어촌 순회검진등 '열심'

(사)감로심장회(회장 정일스님)가 설립 5주년을 맞으며 무료수술 1백인을 넘어섰다.

지난 89년 이미미씨의 심장판막증 수술모금 운동 전개를 계기로 설립된 감로심장회는 불타의 자비정신을 본받아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무료시술을 주선하여 재활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에 그 뜻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감로심장회는 심장병 환자 무료 수술외에도 심장병예방 홍보사업 및 회지발간, 심장병 환자 후원사업, 농어촌 순회 무료 검진사업, 헌혈 지원사업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박순자씨(54·경남 산청군 시천면)를 수술함으로써 무료수술 1백회를 넘어선 감로심장회는 현재 1백6명째를 무료수술하는 한편 그동안 9차례에 걸친 벽지 농·어촌 순회를 통해 4천7백여명을 무료검진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4월말까지 진주시 삼천포시를 포함한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의 무료검진을 비롯, 5월과 진주시 개천예술제 기간동안 헌혈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감로심장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남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백여 수술자,지역·단체기관장,지역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5주년 기념법회 및 개심수술 100회 특집'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우〉

문화재 관람료 하반기 인상

대통령 개선안 재가…물가상승 범위내

사유문화재 관람료 개선안을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최종 재가함에 따라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8일 조계종총무원에 문화재관람료의 자율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유문화재 관련제도 개선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사찰관람료의 자율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사유문화재 관련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률 30%로 적용되던 예치금 의무비율의 차등 부과 △관람료 결정 자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조계종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대책위(위원장 시현)는 지난달 20일 관람료징수 사찰로부터 관람료조정 등 현안문제를 위임받음에 따라 문화재관리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예치금 의무비율과 관람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쇄신위의 사유문화재 관련제도 개선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을 상반기중 개정한다.

조계종 교무국장 회의

조계종 교육원 주최 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가 오는 22일 오전 11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각 교구말사 주지 연수회 실시 △학인 이동질서 확립 △지방승가대 학제개편 및 교육개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이다.

대불련 법사과정 출범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 법사과정 출범식을 혜화동 원효정사에서 갖는다.

중국연변 문화관 건립키로

재가회의 민족동질성 회복차원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는 지난 3일 운영·기획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금년 당면사업으로 중국 연변에 문화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 기획위원들은 21세기 통일시대를 앞두고 중국, 사할린 교포들과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이사회 추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재가회의가 추진하는 연변문화원은 민족적 문화유산, 겨레의 정신, 남한의 생활문화를 소상히 소개하는 각종분야의 성인 아동용 도서를 현지에 공급해 독서운동을 펼치는등 중국동포를 위한 문화공간 및 불교포교에 활용된다.

군포교 새 기틀 마련

상무대 무각사 낙성식

광주·전남지역 군불교도량인 무각사(주지법사 김영헌)가 3년간의 불사를 마치고 전남 장성의 신 상무대로 이전, 오는 16일 오전 11시 낙성식 및 봉불식 법회와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젊은 청년과 군불자들의 수행과 전법의 도량이 될 신 상무대 무각사는 1천여명이 동시에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1백50여평 규모의 대웅전을 갖추고 있다. 무각사는 약사전, 종무소, 전시관, 참선실 등을 갖춘 다목적용 요사채도 완비돼 군불교 포교에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제 대비 토론회

실천승가회…오는 4월

실천승가회(공동회장 지선·청화)는 지난 8일 승가회 사무실에서 제15차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계획 인준과 중앙위원 선정, 특별안건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실천승가회는 6월 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해 지방차치에 대한 불교도들의 관심과 대응방향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4월 서울에서 '지방화 시대의 전망과 불교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실천승가회는 2기 출범을 맞아 공동의장등을 포함한 당연직 중앙위원 20여명과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을 비롯한 선출직 중앙위원 60여명등 모두 83명의 중앙위원을 확정했다.

조계종 제8기행자교육

조계종 제8기 행자교육원 개원고불식이 지난 8일 오전 7시 봉도사에서 봉행됐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자교육에는 조계종 직할교구를 비롯 전국 24개 본사에서 총 240명의 행자가 습의실수와 함께 사미(니)율의, 초발심 자경문, 보현행원품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비구니 수행관 낙성식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 비구니수행관(사감 본각스님)이 오는 22일 10시 낙성식을 거행한다.

비구니 수행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학사 이전후 불교회관으로 활용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석왕사 생협 본격운영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스님)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1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자연과의 공생, 사람간의 신뢰회복, 협동적인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석왕사 생협은 먹거리 공동구입·환경 생태계 보호운동·공동체 문화건설 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생협은 환경운동과 우리농산물 살리기 운동의 현실적 방법으로 운영, 앞으로 지역주민조직의 유대와 지역내 불교위상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선우' 법인추진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지난 4일 장충동 사무실에서 제48차 운영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95년도 사업안을 토의했다.

우리는 선우는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캄보디아 난민 구호사업, 육사생도 교화사업, 청소년수련회 및 장학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이번 사업안은 오는 25일 오후 4시 하림각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를 거쳐 확정 실시된다.

부산불교예술대 개학

부산불교예술대학(학장 정덕자)은 지난 10일 개학식을 갖고 불교예술을 이어갈 후학양성을 시작했다.

불교전통예술의 연구와 전승발전을 도모하게 될 부산불교예술대학은 고전무용학과와 국악과를 개설, 실기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평불협 '하나로'지 복간

평불협(회장 월주스님)회지 '하나로'지가 복간됐다.

92년 2월 창간됐던 '하나로'지는 94년 평불협 필화사건으로 94년 7·8월호(통권12호)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2월 17일 공보처 정기간행물등록에 의거 3월4일자로 복간, 95년 3·4월호(통권13호)가 발행됐다.

중앙승가대 현황·발전방향 설문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은 학교운영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피교육자이기 이전에 스님이다'는 인식이 학내외의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승가대학 기획실과 학생회가 지난 연말 학인 및 동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승가대학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인스님들은 44.2%가 다소 불만족, 16. 8%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는 50.6%가 나쁜편,24%가 매우 나쁘다고 답해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부설기구와 부설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 41.1%가 불충분, 21.6%가 매우 불충분하다고 답해 응답자의 62.7%가 지원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특히 재정상태의 평가에서 50.6%가 나쁜편,24%가 매우나쁘다고 응답해 학교운영의 부정적인 평가원인은 재정상태의 어려움에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종단의 지원이 필요(99.3%)하며 현 종단의 지원은 불만족(79.6%)한 것으로 알려났다. 학인들의 실태 설문에서 학인스님들은 학비를 은사스님(35.9%)과 법회(27.6%), 소속사찰(11%), 각종장학금(9%)등으로 조달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운영 부정적 평가

다. 한편 정규대 승격시 증설학과로는 불교사학과, 역경학과, 유아교육학과, 한의학과, 신문방송학과, 종교철학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가자의 입학은 반대(64.6%)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탄일 봉축위 구성…내달 29일 연합대법회

조계종은 지난 2일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를 구성(집행위원장 범하 총무부장스님)하고 4.8 행사에 대한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봉축법요식은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조계사를 비롯 전국 사찰에서 봉행되며 일주일전인 4월 29일에는 봉축연합대법회가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법회후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제등 행렬이 실시된다.

교양대학 입학생 작년比 10%감소

95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전국 불교교양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입학생 감소의 현상이 나타나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방불교대는 지난해 1백26명이었던 입학생이 금년에는 83명, 호남지역 재가교육의 대표적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도 지난해 2백20명에서 금년 1백30명으로 감소의 현상을 보였다

이밖에도 다수의 불교교양대학 입학생이 큰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양대학 일선관계자에 따르면 입학생 감소의 원인을 "전문교재의 부족, 강사초빙의 한계, 학사일정의 불규칙 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제는 불자들이 단순한 교리이해나 교양습득의 차원을 벗어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자들의 소양함양과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태동했던 불교교양대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여건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호신경전—모시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이옵니다!!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모셨습니다.

봉축 탄생

영험있는
만다라의 신비함과 우주의
삼라만상이다들어 있는 비경

천불은 현세·현겁에 차례로 출현하는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서가모니불·미륵불을 위시하여 최후 르지불까지의 천불을 말하며 천불금강경은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부처님을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하여 만다라의 영험과 신비함을 갖추고 있어 이시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며 가정에 모시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소원을 이루십니다.

• 봉축특가 ₩480,000
(현금 일시불, 은행신용카드분할가능)

포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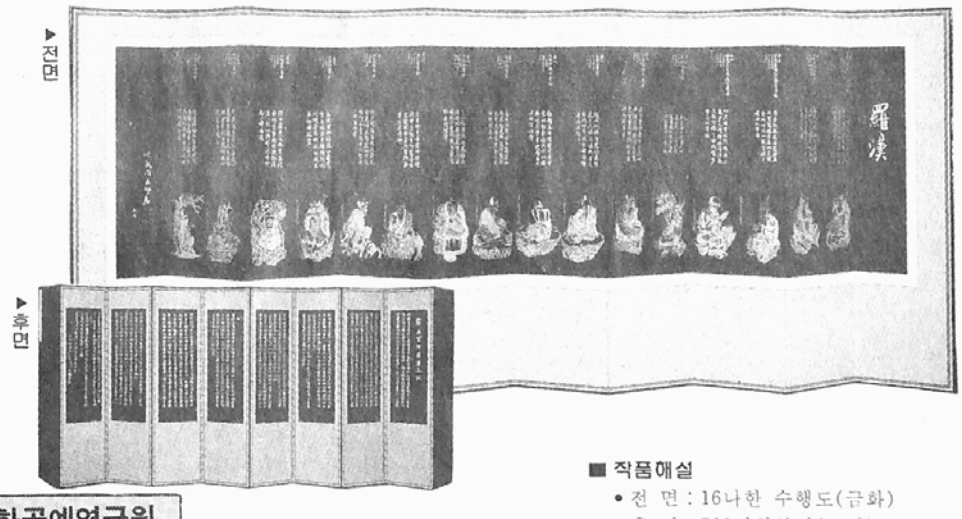
부처님 품안 우리의 미래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 포교원
■ 문의처 : 732—6096, 735—5293

영험높은 병풍——— 계문대사의 16존자 수행상 탱화

16나한도 10폭 연결 공단 병풍

큰 깨달음로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듣고 정법을 수호하도록 위촉받은 16나한님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수행모습을 나타낸 중국 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탱화를 공단에금화로 옮겨 10폭 병풍으로 조성하여 수행하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나한님의 영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 봉축특가 : ₩420,000
■ 분할가격 : ₩460,000
인수시 ₩100,000 매월 ₩120,000×3회

■ 작품해설
• 전 면 : 16나한 수행도(금화)
• 후 면 : 500나한본기(금시)
■ 작품규격 : 높이 5.5尺 폭 15尺
■ 표구재질 : 앞뒤 고급공단 金子書·畫 스기원목(수입재)